

조선어습득에서 동사 《나다(내다)》를 보조동사로 쓰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와 그 원인

우 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308페이지)

조선어의 어휘와 표현들은 문장에서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그 어떤 사상감정이나 섬세한 의미도 구체적으로 나타낼수 있다.

조선어에서 보조동사는 순수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자립적단어에 붙어 문장성분을 이루는데서 보조적역할을 노는 동사이지만 조선어의 표현력을 풍부히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어의 동사 《나다(내다)》는 일상생활에서 보조동사적으로 자주 쓰이며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도 다양하다.

그러나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동사 《나다(내다)》를 의미에 따라 구별하여 쓰는 문제는 어려운것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속에서 동사 《나다(내다)》를 보조동사로 쓸 때 나타나는 오류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동사 《나다(내다)》의 의미와 그 쓰임에 대하여 《조선말대사전》(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있다.

동사 《나다(내다)》는 자동사로 《(걸로로나 밖으로)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혹은 나타나서 존재를 이루다.》는 의미를 비롯하여 15가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타동사로 《첼(계절)이나 동안을 넘기거나 지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일부 동사나 형용사의 이음형과 결합하여 보조적으로 쓰인다.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첫째로, 일

부 동사의 《아, 어, 여》형과 결합하여 《동사가 뜻하는 동작을 여러번 겪거나 치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로, 일부 동사의 《아, 어, 여》형과 결합하여 《동사가 뜻하는 동작의 진행을 힘주어 말함.》을 나타낸다. 셋째로, 동사의 《다》형, 《고》형과 결합하여 《동사가 뜻하는 동작이 끝남.》을 나타낸다. 넷째로, 일부 형용사의 《아, 어, 여》형과 결합하여 《형용사가 뜻하는 속성이 일정한 정도에 이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사 《내다》는 첫째로, 동사 《나다》I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⑩, ⑫, ⑬, ⑮의 시킴형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둘째로, 동사 《내다》가 타동사로 《필요한데 쓸돈이나 물건을 주거나 바치다, 거름이나 재, 모 같은것을 논밭에 내가거나 심다.》 등 12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서술되어있다. 셋째로, 동사 《내다》가 《아/어/여》형아래에 쓰이어 《동작이나 생각이 끝까지 계속되거나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견디여내다, 참아내다, 찾아내다, 이겨내다, 알아내다》를 실례로 주었다.

동사 《나다(내다)》의 이러한 의미와 그 쓰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말이나 글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첫째로, 용언과 동사 《나다(내다)》의 결합에서 생기는 오류이다.

례: 그는 고향친구를 만나서 매우 기뻐 났다.(기뻐했다)

많은 사람이 한방에 같이 있어 아주 불편 해 났다.(불편했다)

영남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 셔 났다.(마셨다)

소음때문에 친구의 말이 잘 안 들 려 났다.(안들렸다)

우의 레문들은 형용사 《기쁘다, 불편하다》,

동사 《마시다, 안들리다》가 동사 《나다(내다)》와 결합한 오유문들이다.

동사 《나다(내다)》가 용언과 결합할 때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즉 일부 용언만이 동사 《나다(내다)》와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다》, 《끝내 이루어지다》가 기본의미이므로 그 단어결합도 행동의 주체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 의지를 표현할 때 주로 쓰며 이로부터 어려움이나 창조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타동사들과 일부 동사들은 《내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특히 《읽다, 축하하다, 좋다》 등은 동사 《내다》와 절대로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자연적인 결과나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쓰인다.

그리고 《나다》, 《내다》는 모두 공간적이동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나다》는 행동의 주체의 이동을 표현한다면 《내다》는 객체의 이동을 표현한다.

이러한것들은 《나다》와 《내다》의 차이점 이면서 문장에서 동사 《나다(내다)》와 결합하는 용언선택에서 참고해야 할 점들이다.

둘째로, 동사 《나다(내다)》가 일부 용언들과 결합할 때 이음로 《아, 어, 여》를 쓰는 데서 생기는 오유이다.

례: 영수는 아버지가 욕하자 집에서 달어 났다.(달아났다)

나는 오늘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찍 깨 워났다.(깨여났다)

그는 오래전에 있는 일을 생각냈다.(생각해냈다)

동사 《나다(내다)》는 용언들과 결합할 때 이음로 《아, 어, 여》에서 해당하는 토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용언의 말줄기에 《아, 야, 오, 요》와 같은 밝은 모음이 있는 경우에는 《아》를, 《어, 여, 우, 유》와 같은 어두운 모음이 있는 경우에는 《어, 여》를 취한다.

례: 남다—남아, 삶다—삶아, 녹다—녹아
먹다—먹어, 구다—구어, 넘다—넘어
이 방법은 용언의 《아, 어, 여》 형태만들기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셋째로, 동사 《나다(내다)》를 직접적인 련관관계에 있는 단어와의 련계속에서 보고 필요한 단어결합을 쓰지 못한데서 생기는 오유이다.

례: 공원에 아름다운 꽃이 곱게 났다.(피어났다)

그 장때문에 청소하기 불편하여 복도로 냈다.(들어냈다)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났다.(불어온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갑자기 흘러 났다.(넘쳐났다)

일반적으로 《꽃》은 《피어나다, 곱다》라는 단어를 요구하며 《복도로》는 《나가다, 들어내다》, 《바람이》는 《불어온다, 불다》, 《강물이》는 《넘쳐나다, 흐르다》 등의 단어들을 요구한다. 이것들은 문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선택된다. 그러나 문장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해도 《꽃이 나다》, 《복도로 내다》, 《바람이 불어났다》, 《강물이 흘러났다》라는 결합은 없다.

그러므로 동사 《나다(내다)》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고 전반적인 문장 내용에 따라 동사 《나다(내다)》와 해당하는 용언을 선택하여 써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해당 단어에 따라 용언이 달라지며 그 용언에 따라 동사 《나다(내다)》의 결합가능성이 규정된다는것이다.

넷째로, 동사 《나다(내다)》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토를 잘못 써서 생기는 오유이다.

례: 영남이는 온갖 곤난이 이겨내고 성공하였다.(곤난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그를 나타냈다.(그가)

마침내 우리는 좋은 방법이 생각해냈

다.(방법을)

우의 레문들은 동사 《나다(내다)》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토를 잘못 쓴 오유문들이다.

동사 《나다》는 자동사이고 동사 《내다》는 타동사이다.

그러므로 자동사 《나다》앞에는 주격토 《가/이》를 쓰고 타동사 《내다》앞에는 대격토 《을/를》을 써야 한다.

다섯째로, 조선어와 해당 나라의 언어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오유이다.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모국어의 언어론과 체계에 익숙한 사정으로 하여 이러저러하게 어휘나 문법을 모국어와 비교하면서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매 언어마다 자기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외국어와 자기 나라 말의 대응관계가 성립되는 부분도 일정한 정도나 일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마련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면 오유를 범할수 있다.

실례로 조선어와 중국어와의 차이를 들수

있다.

중국어에는 보조동사가 없는것으로 하여 학습자들은 습관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로부터 《나다(내다)》를 자립적동사로만 보고 보조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동사 《나다(내다)》를 보조동사로 쓰는데서 생기는 오유들은 이밖에도 각이한 형태가 있다.

조선말은 대상의 미세한 특징이나 상태, 움직임도 다 표현할수 있는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이다. 그러므로 동사 《나다(내다)》를 보조동사로 쓰는데서도 해당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알고 그 단어들이 동사 《나다(내다)》와 결합되는 구체적인 형태들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동사 《나다(내다)》의 쓰임을 비롯하여 우리 말의 쓰임과 그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종합하고 보다 과학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우리 말을 배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실습생임)